

지역 소식통

정읍시 관승기 부시장
현안 추진상황 보고회

정읍시는 지난 13일과 14일 2일간 관승기 부시장 주재로 각 소관 국·소장이 배석하고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 관 부시장은 부서별로 추진하는 공약사업과 현안 사업, 집단 민원 등 사업 전반의 추진상황을 설명 들었다.

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관 부시장은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하반기 주요 업무와 현안 사업들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누수를 사전 차단하고 시정계획의 추진력과 완성도를 높여 연말 시정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전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서 모양지구대
범죄예방 문안순찰

고창경찰서(서장 이상주) 모양지구대(대장 천광중)는 관내 마을에 진출, 찾아가는 문안순찰을 실시하여 범죄예방, 보이스 피싱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안순찰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접촉형 순찰 활동으로 범죄로부터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마을에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범죄 사례를 설명하고, 범죄예방 예방 방법 및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설명하며 사전에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문안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천광중 지구대장은 "차례 전파를 통해 어르신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한 순찰을 통해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막걸리 특화 거리 만든다

정읍시, 용역착수보고... 지역 대표 먹거리 구체화 논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 기대감

막걸리는 예로부터 서민들의 대표적인 술이었지만 최근엔 프리미엄 막걸리가 등장하고 맛 또한 다양해져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다.

최근에는 낮은 도수의 주류 열풍과 레트로 트렌드 확산으로 막걸리가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20~30대 젊은 층에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정읍 막걸리는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정읍이라는 지역명에서 찾을 수 있다.

막걸리는 물의 맛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에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 중 하나인 칼륨과 탄산, 마그네슘이 풍부하면 막걸리 맛이 좋다.

맛으로 보충하는 정읍 막걸리를 생산하는 곳은 신대인막걸리와 북면생막걸리, 입암막걸리, 정우생막걸리, 송명생막걸리, 응동막걸리, 구절초생막걸리, 신의막걸리 등 8곳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청와대 만찬상에 올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들이 마시면서 화제가 된 송명생 막걸리는 이날엔 국회의원도 즐겨 마시는 막걸리로도 유명하다. 또한, 목 넘김이 좋고 부드러우며 숙취가 없는 것으로 이름난 입암막걸리는 마을잔치나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대표산수다. 30여년 전부터 신의의 술맛을 지키고 있는 신의막걸리와 응골진 술맛의 응동막걸리도 유명하다.

정읍시는 이처럼 지역 고유의 다양한 막걸리를 활용해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막걸리 특화 거리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 막걸리를 정읍 대표 먹거리로 특화하고 막걸리 특화 거리를 정읍시의 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관련해 시는 14일 막걸리 특화 거리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본 설계를 위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 용역은 막걸리 특화 거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과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민간 상호협력에 다지며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와 정읍만의 컨텐츠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의 대표적인 막걸리와 먹거리를 연계한 사업방안 모색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계별 전략 추진과제를 수립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14일 막걸리 특화 거리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본 설계를 위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고창형 희망일자리 사업 본격

생활 방역 · 농어촌 일손 지원 등 422명 모집... 2~3개월간

고창군이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저소득층, 휴폐업자, 청년 등에게 일자리를 주는 희망일자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생활 방역, 농어촌 일손 지원 등 고창 맞춤형 일자리가 눈에 띈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고창형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고창군은 7개 사업(생활방역지원, 골목상권회복,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공공업무 긴급지원, 재해예방, 기업발집지역 정비)에 422명을 모집한다. 사업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3월간 진행된다. 만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우선 선발되고, 사업에 따라 2~3개월간 하루 3~8시간(주15시간~40시간) 일하게 된다. 임금은 시간당 8500원으로, 4대 보험 혜택도 포함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참여하고 싶은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조건 등을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은 이달말 참여자를 확정해 8월부터 사업장 근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고창군청 정길환 상생경제과장은 "고창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사업 참여자와 군민 등이 동시에 만족하게 할 계획이다"며 "희망일자리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 및 휴·폐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쥐 생계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예산 확보 '젠걸음'

권익현 부안군수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을 잇따라 방문해 2021년도 지역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과 5월에 공모 선정이 확정된 곱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88억원과 2020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20억원, 부안 곱소연천 스마트 복합원터 조성사업 39억원 등에 대해 관계부처를 방문해 감사인사를 전하고 2021년 군이 역점 추진할 현안사업들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및 기획재정부 예산실 등을 방문해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조성 사업, 새인삼 MP 변경, 부안 5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안자연장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은 최근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고창경찰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방역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군 "외국발 코로나 유입 차단"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점검

최근 전북도내에서 해외입국 외국인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창군이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점검에 나섰다.

14일 고창군은 최근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고창경찰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방역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방역점검은 최근 해외 국가의 봉쇄 완화와 국내 산업적 수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고 있어 선제적 대처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공동시설 물품 소독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도 병행했다.

방역점검은 고창읍 외국인 밀집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방역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불법체류 상황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단속도 유예됨을 알리는 6개 국어로 번역된 안내서를 홍보했다. 또 마스크 300매와 손소독제 20개를 지원하고 숙소와 공동이용실에 대해 방역소독을 추진했다.

고창군 방역대책본부는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시장, 예산확보 행정력 '집중'

국회 방문, 주요 현안사업 건의

유진섭 정읍시장이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오가며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현안 사업 예비 반영을 위한 대응 활동을 밝혔다. 이날 유 시장은 고민정(서울 광진구) 국회의원과 김수홍(전북 익산) 국회의원, 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 국회의원을 만나 정읍 지역 현안 사업 및 2021 국가예산확보 중점 대상사업에 대해 당위성과 타당성 등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국가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한 사업으로는 ▲헬륨이용 의료용 소형가속기 구축사업 ▲신대인 도시가스 공급 사업 ▲정읍 무형문화재

통합 전수교육관 신축 ▲방사선 분해기반 축산악취 처리시스템 개발 ▲건강기능성 펫푸드 산업 플랫폼 구축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적용 축산환경 개선사업 ▲덕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이다.

유 시장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단계에서 정읍 관련 중요사업 예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1월 말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도내정치권, 출향 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오는 15일에는 기획재정부 한훈 경제예산실의관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